



#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

광활한 우주에 진입하는 인공지구위성의 속도인양 착륙의 첫발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7개월동안과 4개월 남짓한 기간에 거침없이 속아나온 조선의 위성과학자들과 연구과학자요양소, 선진시대의 또 하나의 희한한 선경인 위성과학자들과 연구과학자요양소에 들어서면 누구나 백두산대국이 건설되는 문명국이 과연 어떤것인가, 이 땅에서 모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대면에 절감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하루 빨리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리상을 가슴씩차도록 안아볼수 있는 곳,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강성국가를 향하여 폭풍쳐 줄달음치는 온 나라에 거대한 활력을 더해주는 위성과학자들과 연구과학자요양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말하시고 고린을 잡아주시였으며 전 과정을 전력적으로 령도하시어 눈부신 신성으로 펼쳐진 희한한 이곳에 서면 과학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루시려 하는 그이의 위대한 심정의 언어를 읽을수 있고 조선의 과학자들이 안겨사는 어머니당의 모습을 눈물겹게 우러를수 있다.

우리는 위성과학자들과 연구과학자요양소에 어린 위대한 령도, 가슴뜨거운 사랑의 일대이나마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삼가 붓을 적는다.

위성과학자들에겐 1월의 눈보라가 찾아 올수 있다.

날로 상승장구하는 우리의 강성국가건설 위업, 그 비약적인 발전속도를 저지시키려 하고 원수들이 눈에 피발을 세우고 별의별 추악한것을 일삼던 올해 경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의 열풍을 안아올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에서의 력사적인 현저지도를 단행하시였다.

오늘날 과학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전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강성해지고 결사하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박들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제도를 과학기술로 옹호하고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의 과학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였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 줄라는것은 대원수님들의 유훈입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칠 전초전을 지켜선 과학자들의 가슴에 지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불길입니다.

제국주의와의 첨예한 대결전, 그 앞장에 섰 과학자들에게 어떤 믿음과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간밤에도 과학기술의 살림집이 들어앉게 될 주택지구의 이름을 두고 사색에 사색을 없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당당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살게 될 거리, 자연깊은 주택지구의 이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응시를 뜻이 어렸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기세를 부리려지만 과학자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속에서는 용암이 이글거렸습니다.

당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전날 완공하고 10월 10일에는 과학자들을 임시숙시켜야 하겠다고, 위성원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우리의 과학자들 속수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어 두볼을 뜨겁게 적시지 않았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런 숭고한 잊지 못할 때의 건설시책에서 류례없는 위대한 창조와 혁신의 불길이 새처럼 타번지기 시작하였다.

때 순간이 10년, 100년 맞잡아도 흐른 공산적인 나라였습니다.

공사 첫날부터 붉은기들이 숲을 이루었다. 시시각각 솟아오르는 살림집들, 공공건물들, 앞질러가며 달는 도로들, 원림문화사업...

백혈병의 불발람속에 건설력사가 알지 못하는 힘채전이 벌어졌다.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과학자들로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정의 박동도 숨결을

함께 하는 전제 건설자들의 불타는 충정이 기적적인 현실을 안아왔다.

분과 초기 전인불발의 연속인 초진장속에서도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당창건기념일까지 완공하겠다고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하신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을 졸본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소에 달려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플로공사와 지붕공사, 내부공사와 마감공사 등 공사일정계획도 일일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세워주시였다.

때로는 이른새벽에, 때로는 깊은 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로 마음을 달려신적은 그 열마일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실로 의의깊은 위치, 희한한 풍지, 생활상 아무런 불편도 없이 꾸려진 살림집들, 아름다운 나무들과 별천지같은 봉사망들...

참으로 그 발전으로부터 건설의 전 과정은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에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으로 산란초록도 울린 있지 못할 나라였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말없는 사랑의 결정체였다.

드디어 위성의 속도,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처럼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자기의 웅장한 지대를 드러내었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살림집배치를 부지면적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도 생활상편리를 위한만큼 보장해 줄수 있게 함으로써도 함께 대해서도 강조하시어 평양시교외에 위치한 살림집지구의 특색에 맞게 살림집들이서 부엌방도 내주고 지그미한 온실들도 꾸려주시는것이 좋겠다고 친언어이로 정으로 말씀하시였으며 바깥벽을 구색이 맞게 마감하고 현판부열의 창문도 원형창문으로 내주도록 하라고 다스리시 이르시 원수님입니다.

5호동 1현관 1층 1호를 돌아보실 때에는 시공도 잘하고 거주들도 그쁘게 갖추어놓았다고 못내 만족하시며 살림집들에 텔레비전도 다 놓이주라고, 공동살림집에 텔레비전을 콘크리트도 놓아주었다. 그에 맞는 화단이 큰 액정텔레비전을 보내주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책상우에 놓아준 책상에는 또 얼마나 다정한 어머니사랑이 깃들여있었는것인가? 책상은 당반직책자들이 놓아주시는것이 더 좋다고, 당반직책자들이 설치해주면 자재도 많이 절약되고 비용도 편리하며 보기에 도 더 좋으니 당반직책자들이 만들때 료에 책들을 끼워넣을수 있게 간막이를 해주라...

생활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새집들이를 떠나는 애용하던 살림집도 나무 가지와 과학자들의 행복담은 모습을 그려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정 만민에 해탈같은 미소를 지시였다.

어느 특정한 몇명의 과학자들만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기술자들모두의 보금자리

는 조선의 과학자 한사람한사람을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아끼시는 우리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정의 결정체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살림집가구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문제와 소확하고, 초급중학교에 놓을 교구비품들을 비롯하여 공공건물들에 필요한 비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에 이르러까지 세심히 관심해주시였으며 겨울에 살림집들을 덮힐수 있게 난방설비들도 설치해줄데 대한 은정넘친 가르침도 주시었다.

나나시에 앞서 당창건기념일까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워 현대적인 살림집을 마련해주셨다는것은 자신께서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한 약속이며 건설자들이 당앞에 다진 결의라고,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이 과학기술을 앞세워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앞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당앞에 결의한 날자까지 기여이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세상을 놀래게 하는 기념비적창조를 훌륭히 완공하리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당창건기념일까지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훌륭히 일떠세울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시는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장의 분과 초가 올랐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기적의 원인이었고 희한한 창조도 말해지었다. 우리의 자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이는 과학자들을 제물로 귀찮게 여기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사정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는가를 실증하는 혼연일체의 속도가이다.

우리 당이 결심하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워야 한다는 결사판결의 신념, 우리 원수님의 리상을 쫓아주는 길에서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난관들과의 투지, 바로 이것이 위대한 령도의 체현자이신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자들이 지난 진주보실보다 더 아름다운 랑십이고 의리이다.

억만공파도 바꿀수 없는 조선의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을 위하여 옹근 한개의 도시와도 맞먹는 희한한 주택지구를 불과 7개월동안에 기적적으로 일떠세우도록 하는 전후후무한 공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정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노예를 몰아내 주었다. 과학기술강국에도 도약하는 백두산대국의 웅장한 모습에 가장 눈부신게 보이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황홀한 여기에 서면 백두산대국이 어떤 강국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수 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불과 3년도 못되는 사이에 기적적으로 일떠세운 령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보다는 과연 무엇이 기적의 원동력이었는가를 아는것이다.

참다운 령도는 그것을 위하여 바친 령도자의 신념과 헌신에 의하여 엮여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돌아보실 때 너무도 기쁘고 만족하시며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며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한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멋진 살림집을 안겨 주게 된것은 얼마나 기쁘시었으면 우리 원수님 온 세상이 환해지도록 그렇듯 행복의 미소를 지으시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여러가지 색채일도 보기 좋게 장식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시면서도 만족을 금치 못하시었다.

살림집들이 아담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꾸러졌을뿐 아니라 질좋은 가구비품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졌다고 기뻐하시면서 모든 살림집들에 당에서 마련한 천연색텔레비전과 이불, 집기류들까지 놓아주던 과학자들이 맨몸으로 들어와 살수 있었기라고 기쁨에 겨워하신 우리 원수님입니다.

그 이기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세 세기 교육까지의 본보기답게 훌륭히 시공한 유치원, 학교들과 성의있게 잘 지은 종합청사, 약국 등 보건시설들과 탁아소, 희한한 위성원을 돌아보시면서도 우리 원수님 정성 만폭하시였다.

위성과학자들이 문화정서생활과 휴식을 마음껏 할수 있게 덧붙이지며 꾸러진 공원이건 전담체육시설도 않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도 행복의 미소를 금치 못하신 우리 원수님입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일떠세운것은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시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아무런 불편도 없이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라고 우리 원수님 뜨겁게 말씀하시 때 얼굴동도는 웃어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런히 안겨준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에 헌성을 바치려는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가울것이 없다고, 과학자들을 내세워주고 우대해주고 그들을 위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시 때 우리의 과학자들은 끝내 참고참았던 오열을 더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과학자들이 흘린 눈물, 그것은 누가 알아주진말건 오로지 당과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친다는 일념을 안고 일떠세우는데 그것을 당에서 값을 내지않고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과학의 기적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거기에 는 미지의 세계를 돌파해야 할 어려운 길 이 놓여있다. 그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과학자들의 지성과 헌신을 리해하여준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오죽하였으면 헌정 과학자개발으로 이름을 떨친 류리 부인이 인력양성에 그처럼 큰 공을 세우고도 사회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서운한감을 안고 과학을 아는 정지와 제도가 그림자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는가.

어머니는 자식이나 하는 모든 일을 제일 잘 알려 마음속으로 속속들이 안다.

우리 조선의 과학자들이 안겨사는 은혜로운 당의 품은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위대한 어머니 품이다.

우리의 과학자들에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을 마련해주시고 너무 기쁘시어, 연공과학자요양소에 당에서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한 금방석이라고, 그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고 온 세상을 연일신트 그리노도 행복찬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대책적인 모습을 우리 어이 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으랴.

지금 조선의 과학자들의 가슴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행복의 미소가 스승히 차있고 온 과학원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신력으로 보답할 불타는 신념과 의지로 불도가니마냥 끓는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인은 과학자, 기술자입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주 과학기술로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공들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국가과학원의 모든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높은 리상과 꿈을 안고 눈부신 과학기술성공과 부강조국건설위업에 적극 기여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숭고한 뜻을 심장 에 새기고 또 새기며 그이의 리상을 하루 빨리 현실로 꽃피울 열망으로 우리의 과학자들은 잠들지 못한다.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아가울것이 없다고 늘 의우시며 무엇이 하나 생기기어든 들부러도 벌어진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이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어머니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조선의 과학자들보다 더 행복하고 긍지높은 과학자들이 세상에 또 있었는가.

위대한 어머니, 자재로운 스승을 모신 조선의 과학자들의 앞길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만이 약속되었기다.

사람들이여,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 와보시라.

그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식으로 보내주신 수많은 설비와 비품들, 체육 및 문화오락기재들을 그쁘고 맛깔스런 종합청사소, 휴양각, 다용도야외운동장 등 활활타고 지그없는 연공과학자요양소에 가보시라.

그러면 누구나 위대한만이 펼쳐진 과학기술의 대우로를 가슴가슴까지 바라볼수 있다.

어떤 정진으로 강성국가건설대전에 펼쳐 나사야 하는가를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게 된다.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효모의 노래가 절절하게 울리는 곳, 당에도 황홀하고 야경 또한 눈부신 여기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연공과학자요양소 돌아보면서 사람들 은 자비를 페부로 느끼며 위대한 령도자, 자재로운 어머니로 높이 모신 조선의 과학자들에게 대한 부러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 당이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자

### 국가과학원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 모습을 절저히 관찰하기 위한 국가과학원 종업원들의 쉼기모임이 24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국가과학원 원장 장흥의 보고에 이어 자연에너지연구소 소장 리명선, 위성원 지배인 조명순,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사 김광수, 은정구역 위성소속 교장 리향일이 토론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면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을 몸소 말기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전 포도시 은정과학자구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과학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금질같은 새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것은 너무나 기쁘시어 새집들이하게 될 그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천연색TV와 이불, 집기류까지 놓아주도록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 배물어주시었다고 말했다.

새로 건설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자연에너지연구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 에 불같은 창조력 열정을 다 바치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 지도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

## 혁명렬사 오백통동지의 반신상에 화한 진정

혁명렬사 오백통동지의 반신상에 화한 진정

현영철동지와 김용진대각부총리, 당, 무력, 정권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 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오백통동지의 반신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부대, 시내 당, 정권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땡기에는 《혁명렬사 오백통동지를 추모하오》라는 글말이 쓰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총칙한 혁명적사로 한생애를 빛내셨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오백통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다지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은 이북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인민의 행복을 쫓아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장마음을 불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산으로 꾸러가기 위한 투쟁으로 궁결같은 곳곳에 생활에 필요한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바이다.

참수인들이 손에 든 살림집 리용가능여는 집값이 아니라 후손에게서도 궁결같은 새 집값을 받아안은 그들의 이름이 뚜렷이 적혀있었다.

## 수필: 대동강반의 《뚝배》

일찍부터 이 강반은 풍자아름답고 조용하여 산보물하고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데도 제격이었다. 바로 그런곳에 집터가 뚫어지고 몇달사이에 멋진 초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섰다.

파면저 창밖은 방안의 어느 누가 강을 끼고있고 풍기잡고 조용한 이곳, 정적은 강도 가까운 좋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새로 꾸며 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람이면 방안에다가 머구자 놓이고 책장과 책상을 갖춘 서재까지 다닐 점에 이것을 내걸게 되리라고 상상하였으리. 참으로 그들은 꿀잠이도

지 하늘가 46층 어느 창문인가. 이거께서 몸소 들리셨던 그날의 그집 창문은. 교육자들에게 훌륭한 새 집을 안겨주게 된것은 기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 환히 지시되었던 미소가 비껴올려 창문마다 그리도 밝고밝은것이 아니런가.

충종의 창문들은 행복에 한껏 웃는 얼굴들로 안겨졌다. 교원, 연구자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신 서재까지 다닐 점에 이것을 내걸게 되리라고 상상하였으리. 참으로 그들은 꿀잠이도

## 이수필: 대동강반의 《뚝배》

이 되어야 하는 사회에서는 고급호열같은 집이 인민대중과 전혀 인연이 없었다. 오호호한것의 계단은 인민들이 오를수엔 너무나 높고 머리위에 번쩍이는 창문들은 착취배들의 원금처럼 차디차고 매정하다. 날김만능의 세상,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뚝배》가 그렇게 부자들을 울라하고 근로하는 인민은 그 《뚝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지수상에서 오로지 우리 인민만이 사회주의를 안겨주는 부귀영화의 《뚝배》에 오를수 있다. 대동강반의 새 살림집들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 문화물놀이장이며 류형원, 플라닌유원지며 창조거리, 은하 과학자거리며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뚝배》호 고기배들이 만년기를 날리는 포구들과 칠명아배사파마다. 대규모속산경기지로 전변되는 세모호담...

이 땅의 모든것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지않아 대동강으로 안을 따라 황홀하게 펼쳐진 미레과학자거리도 행복베로 사람들 들을 부르고있다.

대동강반에 서서 하늘가에 솟아있는 새 집들만 쳐다보게자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끊임없이 오르고있는 행복의 높이를 안아 본다. 그이의 손길따라 우리 조국이 이루어지고있는 행복의 높이를 느끼는것이다. 창맹가 구름우로 날듯 우리는 원대한 리상과 아름다운 꿈의 하늘을 마음껏 날고있는것이다.

강반에 솟아오른 새 살림집은 불수롭 들우에 두동칠 뚝배같은 뚝배였다.

바람을 안아 뚝배들이 한껏 부뚝뚝,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는것만 같다. 우리 당이 키를 잡고 우리 인민이 라고 사회주의혁명에 더 좋은 메일을 향하여!

## 본사기자 랑 순

문화물놀이장이며 류형원, 플라닌유원지며 창조거리, 은하 과학자거리며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뚝배》호 고기배들이 만년기를 날리는 포구들과 칠명아배사파마다. 대규모속산경기지로 전변되는 세모호담...

이 땅의 모든것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지않아 대동강으로 안을 따라 황홀하게 펼쳐진 미레과학자거리도 행복베로 사람들 들을 부르고있다.

대동강반에 서서 하늘가에 솟아있는 새 집들만 쳐다보게자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끊임없이 오르고있는 행복의 높이를 안아 본다. 그이의 손길따라 우리 조국이 이루어지고있는 행복의 높이를 느끼는것이다. 창맹가 구름우로 날듯 우리는 원대한 리상과 아름다운 꿈의 하늘을 마음껏 날고있는것이다.

강반에 솟아오른 새 살림집은 불수롭 들우에 두동칠 뚝배같은 뚝배였다.

바람을 안아 뚝배들이 한껏 부뚝뚝, 앞으로 나아가는것만 같다. 우리 당이 키를 잡고 우리 인민이 라고 사회주의혁명에 더 좋은 메일을 향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들려주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고 크나큰 환희에 넘쳐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에서— 본사기자 한 광명 찍음

# 당에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하자

## 국가과학원 종업원들의 쉼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 모습을 절저히 관찰하기 위한 국가과학원 종업원들의 쉼기모임이 24일에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국가과학원 원장 장흥의 보고에 이어 자연에너지연구소 소장 리명선, 위성원 지배인 조명순, 정보과학기술연구소 연구사 김광수, 은정구역 위성소속 교장 리향일이 토론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면서 위성과학자주택지구건설을 몸소 말기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얼마전 포도시 은정과학자구에 거룩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며 과학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자들에게 금질같은 새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것은 너무나 기쁘시어 새집들이하게 될 그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천연색TV와 이불, 집기류까지 놓아주도록 대해같은 은정을 거듭 배물어주시었다고 말했다.

새로 건설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자연에너지연구소들을 돌아보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 에 불같은 창조력 열정을 다 바치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 지도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

## 혁명렬사 오백통동지의 반신상에 화한 진정

혁명렬사 오백통동지의 반신상에 화한 진정

현영철동지와 김용진대각부총리, 당, 무력, 정권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유가족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 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오백통동지의 반신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부대, 시내 당, 정권기관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땡기에는 《혁명렬사 오백통동지를 추모하오》라는 글말이 쓰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총칙한 혁명적사로 한생애를 빛내셨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오백통동지를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의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다지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은 이북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로 하여금 인민의 행복을 쫓아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장마음을 불로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산으로 꾸러가기 위한 투쟁으로 궁결같은 곳곳에 생활에 필요한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바이다.

참수인들이 손에 든 살림집 리용가능여는 집값이 아니라 후손에게서도 궁결같은 새 집값을 받아안은 그들의 이름이 뚜렷이 적혀있었다.

## 수필: 대동강반의 《뚝배》

일찍부터 이 강반은 풍자아름답고 조용하여 산보물하고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데도 제격이었다. 바로 그런곳에 집터가 뚫어지고 몇달사이에 멋진 초고층살림집들이 일떠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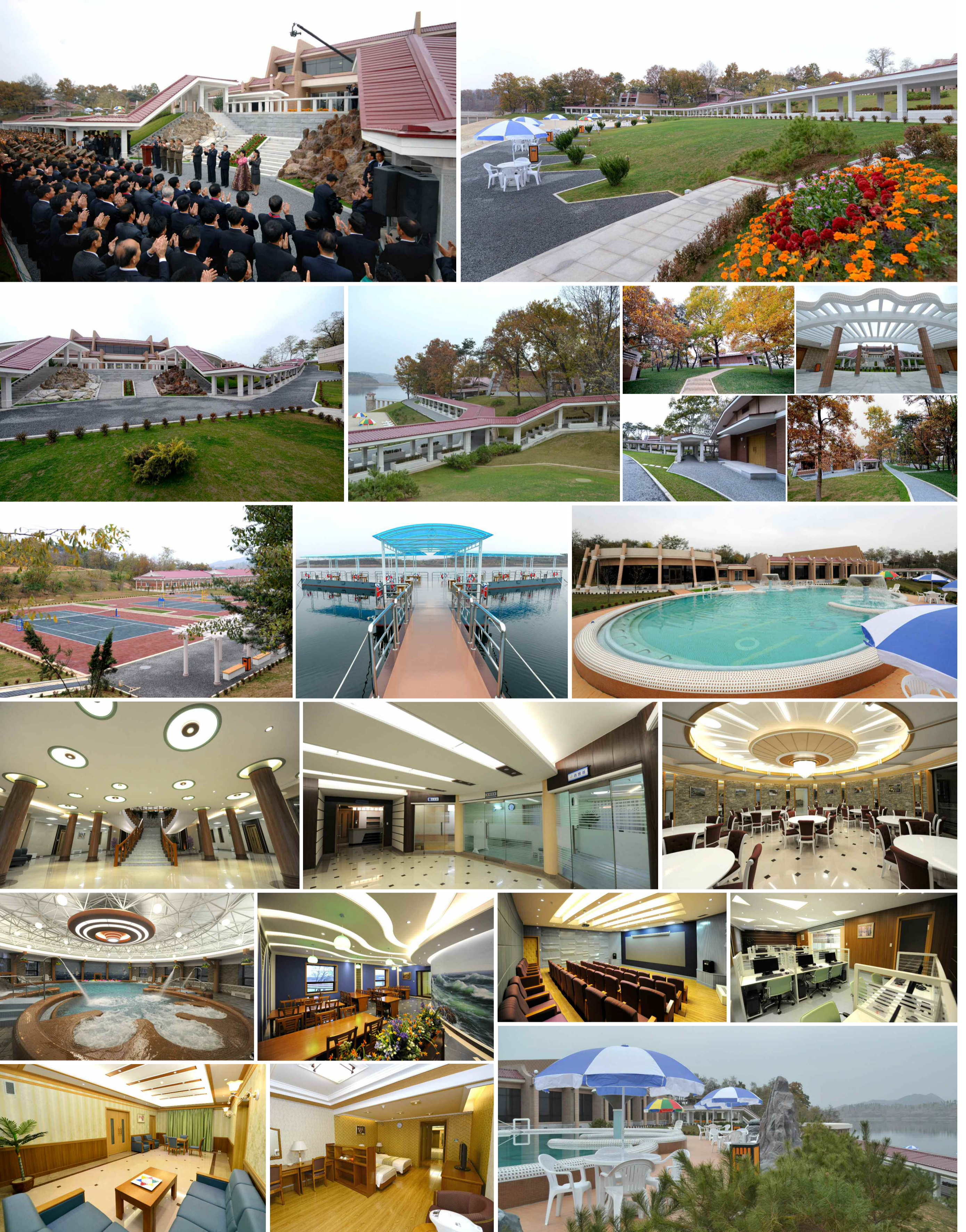
파면저 창밖은 방안의 어느 누가 강을 끼고있고 풍기잡고 조용한 이곳, 정적은 강도 가까운 좋은 자리에 보금자리를 새로 꾸며 되리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람이면 방안에다가 머구자 놓이고 책장과 책상을 갖춘 서재까지 다닐 점에 이것을 내걸게 되리라고 상상하였으리. 참으로 그들은 꿀잠이도

지 하늘가 46층 어느 창문인가. 이거께서 몸소 들리셨던 그날의 그집 창문은. 교육자들에게 훌륭한 새 집을 안겨주게 된것은 기쁘시어 경애하는 원수님 환히 지시되었던 미소가 비껴올려 창문마다 그리도 밝고밝은것이 아니런가.

충종의 창문들은 행복에 한껏 웃는 얼굴들로 안겨졌다. 교원, 연구자들에게 새 집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하신 서재까지 다닐 점에 이것을 내걸게 되리라고 상상하였으리. 참으로 그들은 꿀잠이도

# 과학자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황홀한 선경

## 연풍과학자휴양소 준공식 진행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은 나라에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해마다 진행되는 예술인체육대회, 어느덧 45번째의 년회를 새기며 지난 24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올해의 예술인체육대회는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솟구치는 청춘의 활력을 총폭 발시켜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 체육열풍을 명작창작성과로 이어갈 드높은 신심

## 성황리에 진행된 제45차 예술인체육대회



경도를 명작목표로 받아들여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뚫어낸 진 의의깊은 계기였다. 영화예술부문, 무대에 예술부문, 미술부문의 선수들이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평시에 만나지 못하는 체육기술과 높은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며 치렬하게 승부를 다했던 이번 제45차 예술인체육대회에서 먼저

진행된것은 특색경기와 여러 경기종목경기들이었다. 공격위치를 바꾸며 연속 강타를 안기는 만수대창작사의 창작가, 날렵히 해를 뚫어내며 총알같이 내려꽂히는 공을 제치기엔 살려내는 평양필립현상소 소장, 60대인 그가 살려낸 공을 같은 팀 선수가 상대편의 빈구석

에 정확히 보내어 득점한 순간 터져오르는 환성... 영화예술부문과 미술부문의 선수들이 치렬하게 진행된 남자배구경기는 영화예술부문의 승리로 끝났다. 한편 미술부문의 무대에 예술부문과 미술부문의 선수들이 정말

### 불타는 조국애, 공장애를 지니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얼어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함흥모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일터를 선전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가고있다. 얼마전 이 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는 공장의 모습에 심취되어 여러가지 놀아보았다. 혁명사적비주변은 물론 정방형으로 된 드넓은 생산건물물레에 이르기까지 나무와 꽃들이나 무, 꽃으로 뒤덮여있었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서 좌우로 갖나무, 은행나무, 수삼나무, 소나무와 다락 등이 숲을 이루고 그밑에는 푸른 주단 마당 새 품종의 잔디밭이 펼쳐져있었다. 생산건물을 마주하면 왼쪽엔 사과나무밭, 오른쪽엔 감나무밭이 펼쳐져 있는데 빨갛게 익은 사과, 누렇게 익어가는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어 마치 파수원을 방백해 하였다. 숲이 우거지니 새들이 날아와 지

수도의 광복거리엔 현대적인 태양열물가열기생산지인 태양열설비보급사가 일떠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때가 불과 3년전이다. 그때로부터 태양열물가열기는 공장과 광산, 농촌 등 여러곳의 공공건물, 살림집들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어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제품으로 되었다. 전기와 석탄을 전혀 쓰지 않고도 사시적 더운물을 충분히 사용할수 있는 태양열 물가열기에 대한 수요는 해마다 1.5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보급사에서는 수천대의 태양열물가열기를 보급하였는데 이것은 바우어 말하여 수만kW능력의 발전소를 거저 얻어낸것이나 다름없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모든 가정들에서 태양열물가열기를 현대적 설치하고 리

### 날로 수요가 높아지는 태양열물가열기

태양열설비보급사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새 제품들도 개발되었다. 그중에서도 2012년에 개발한 페넬라태양열물가열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있다. 보급사에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물가열기의 성능을 새롭게 하였는데 수요자들이 좋아하고있다. 태양열물가열기의 전한효율도 현저히 높아져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인기를 모으고있다. 창립된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급사에서 이루어놓은 성과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본사기자 리 철 욱

### 전국인쇄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인쇄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3일과 24일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진행되었다. 인쇄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발표회에 참가하였다. 발표회에서는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인쇄공장, 평

### 성능이 좋은 풍력발전기 개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풀어야 하며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힘을 넣어 그 리용전망을 확고히 열어야 합니다.》** 최근에 자연에너지개발교류사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는 소형풍력발전기를 연구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곳 연구집단이 새로 개발한 1kW급 풍력발전기는 바람속도가 3.5m/s 되는 비교적 약한 바람에서부터 전기가 생산되며 10m/s 이하로 부는 바람속에서도 충전전류가 종전의 발전기들에 비해 3배 정도 된다. 이 풍력발전기는 날개가 유리강화수지로 되어 있어 수명이 길뿐 아니라 가볍고 소음흡수성이 좋다. 또한 발전전압과 충전전류, 충전지전압, 발전기회전수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장치가 달려있어 리용에 편리하며 파손방지기술, 단락전류에 의한 사고방지기술, 과전류방지기능 등 보호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어있다. 여러가지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는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으면서도 실용성이 큰 풍력발전기를 연구 완성할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 짧은 기간에 성능이 좋은 1k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하여 그 리용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들은 지난 기간 풍력발전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서 경험을 가지고있는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리용되고있는 풍력발전기들의 특성과 세계적인 최신연구자료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종합한데 기초하여 보다 성능이 좋고 효율적인 발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이 과정에 첨단급의 모의 프로그램들을 리용하여 특

### 대외문화련락위원회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평양대외문화교류소청사원 에너지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평양대외문화교류소청사의 본보가 꾸려나갔다. 이 건물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본보기라고 평가하게 되는 주저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자연에너지를 리용한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지열을 리용함에 있어서 나라의 자연 리용을 극력 아껴쓰는 리용에서 문제를 대하였다. 그것이 지하수의 주입순환방법을 해결한것이다. 열교환을 진행한 물을 되수로 빼거나 지상에 소비하지 않고 다시 땅속으로 투입순환시키기때문에 지하수고갈이나 지반침하와 같은 위구심을 전혀 느끼지 않고 시간당 7m³의 물량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다. 열병프가동에 필요한 전력보장도 자연에너지를 리용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있다. 교류소에서는 10KW의 순시 전력을 보장할수 있는 태양발전

###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7일 남자 4.25:경 양 화 불:묘향산	여자 청년장:경 양 화 불:묘향산
28일 남자 28:경 양 화 불:묘향산	여자경기 28:경 양 화 불:묘향산
29일 남자 29:경 양 화 불:묘향산	여자경기 29:경 양 화 불:묘향산

### 도이칠란드조선의원단 위원장 일행 도착

하르트무트 쿠퍼 크 도이칠란드조선의원단 위원장과 일행이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서 일군과 주주도이칠란드면방공화국 특명전대사가 맞이하였다.

### 로씨야원동발전상 일행 귀국

조로정부부 장관,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위원장인 알렉산드르 갈루슈카원동발전상과 일행이 24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리방근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제모닌 주조 로씨야면방

###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 연회 마련

유엔의 날에 즈음하여 고향인, 이사크자이 주조 유엔상주조정자 겸 유엔개발계획 상주대표가 24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방명록 외무성 부장, 관계부서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들이 초대되었다.

###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박재화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4일



수도시민들의 교통문제해결에 이바지할 마음안고 새형의 무궤도전차생산을 다그치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촬영

